미션 – 장르가 바뀌는 영화를 찍어라 / 안정현

**S1 학교 책상 / 낮**

책상에서 엎드려있는 원주 옆으로 지나가며 쪽지를 건넨 여학생 민주 (18,여)

고개를 드는 종호 (18, 남)

쪽지를 펴면 ‘옥상에서 기다릴게’

타이틀 – **로봇이지만 사랑만 있으면 상관없잖아?**

**S2 옥상 / 낮**

옥상으로 올라온 종호

쪽지를 손에 쥐고 두리번 거리는 종호

옥상의 옥상 위에 걸터 앉아있는 민주를 발견하는 종호

종호 – 거기서 뭐해

민주 종호를 한번 쳐다보고 옥상의 옥상에서 뛰어내린다

아이언맨 포즈로 착지하는 민주 (빠삭 뼛소리 난다)

종호 민주에게 다가간다

종호 – 괜찮아 너? 방금 다리에서 소리났는-

민주 고개를 숙인 채 종호의 말 끊는다.

민주 – 3학년 2반 박종호. 너 알고 있었지

종호 – 뭐를?

민주 – (고개 들며)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

민주 종호에게 주먹을 휘두른다

종호 나가 떨어진다 종호 입술에서 피가 떨어진다

종호 – 나한테 왜 그래?

민주 –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른다고?

민주 어퍼컷을 쎄게 치면 종호 고개가 팍 들리고 종호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종호 그대로 고개를 떨군다

종호 머리에서 뚝뚝 피가 떨어진다

종호 –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

민주 – 무슨 말이지?

종호 – 그냥 나랑 사귀기 싫다고 얘기하면 되잖아. 그냥 차지. 왜 이렇게 차는 거야

민주 헛웃음 치며 무릎을 꿇고 종호의 턱을 잡는다

민주 –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고?

종호 – 나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

일어서는 민주 뒷짐을 진다

민주 – 난 사실 먼 행성에서 파견된 휴먼인터페이스 로봇 MK220다. 인간들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인간을 관찰하는 것이 내 임무지.

황당한 표정의 종호

민주 –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했어. 근데 내가 너무 인간을 지난 얕본 거 같아. 내 정체를 아는 인간이 나타날 줄이야.

Cut in – 종호의 쪽지를 읽는 민주

‘넌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’, ‘차가운 표정이 로봇 같지만 따뜻한 미소… ‘

민주 – 그래서 1년 동안 넌 날 하루도 빠짐없이 관찰해왔지. 보라는 칠판은 안 보고 나만 뚫어지게 보더라고.

종호 – 그건 내가 산만해서

민주 – 그래서 그렇게 나를 그려왔나?

Cut in 종호가 그린 민주 얼굴들

종호 – 아니 그건 내가 사람 그리는 걸 좋아해서

민주 – 그래서 나랑 눈이 많이 마주쳤다고?

종호 – 그건 그냥 우연히

민주 – 우연히 나랑 눈 마주친 게 892회라고 거짓말 치지마 인간! (종호의 목에 손날을 들이밀며)

종호 눈 질끈 감으면

민주 – (종호가 준 쪽지를 꺼내며) 이건 그냥 나를 더 가까이 관찰하기 위한 수작 아니야?

종호 고개를 숙인다

민주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며 돌아선다

종호 무릎 근처로 떨어지는 쪽지

민주 – 역시 인간은 나약해

종호 일어난다. 안경을 벗으며 일어나는 종호

민주 – 앉아

종호 안경과 자켓을 내려놓고 옷 소매를 걷는다

다가가는 민주

민주 – 앉으라고 했을 텐데!

민주 종호에게 달려가 오른손으로 주먹을 날린다 (배트맨vs슈퍼맨 장면)

왼팔 팔꿈치로 민주를 막는 종호

당황하는 민주

종호 – 인간은 용감하지

민주 왼손으로 주먹을 막지만 이마저도 저지 당한다.

민주 –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?

종호 – 좋아해

민주 팔을 풀고 뒷걸음질 친다

민주 – 넌 인간이고 난 로봇이야

종호 – 그래도 좋아해

민주 입술을 문다

민주 다시 종호에게 다가가며 공격을 한다

종호에게 발차기 하며

민주 – 거짓말 치지마!

종호 발차기를 피한다

계속되는 민주의 공격과 종호의 회피

민주 – 식사는?

종호 – 따로 먹어도 되

민주 – 연락은?

종호 – 내가 먼저 할게

민주 – 애정표현은?

종호 민주의 입술을 막는다

종호 – 내가 더 사랑해

민주 눈길을 피하며 끄덕인다

종호 웃으며

종호 – 오늘부터 1일이다

옷을 챙기는 종호. 종호의 발 돌아서면

민주 – 먼저 내려가

다시 멀어지는 종호의 발

민주 또박또박 걷다가 발을 질질 끈다 (유주얼 서스펙츠 반대로)

민주 얼굴을 카메라가 비추면 민주 상기된 얼굴로

민주 nar 엄마 나 드디어 찾은 거 같아!

민주가 보이지 않을 벽에 등지고 있는 종호

종호 귀에다 손을 데며

종호 – 타겟 확보성공. 미션 클리어

끝